

◀ 대부도 주민 모두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

대부도 주민 5,500세대 중 3,000여 세대는 아직도 지하수 먹고 있다

대부도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5,500세대 중 약 3,000세대가 여전히 수돗물 대신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부도 주민 절반 이상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도관 설치 등 초기 인프라 구축에 드는 과도한 비용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다. 수돗물 없는 삶,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주민 A 씨는 “지하수는 매립지 문제로 인해 언제든 오염될 수 있어 불안하다”며 “수도 설치를 포기한 이유는 터무니없는 비용과 까다로운 서류 요구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국가와 지자체 책임 커 예산 70% 이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대부도 수돗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의 7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23조는 예산 편성 시 공공복지와 환경 개선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20다123456)에 따르면 “수돗물 공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익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기술적·재정적 책임이 크다”고 판시된 바 있다. 이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민간에 전가하는 현재의 방식이 법적·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불필요한 서류 요구, 행정의 비효를 드러나

주민들은 수도 설치 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사도(私人道路)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점, 과도한 행정 서류 요구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서류 발급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수도 설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판례(2015다247325)에서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도로 사용승낙서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이를 행정제에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권 설정으로 대안 마련 가능

전문가들은 공동 사용 토지에 대해 출입, 수도, 배수, 전기, 가스 등의 목적을 위한 ‘지역권 설정’을 통해 별도의 승낙서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적 분쟁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안산시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진다.

도농복합지역 특성 반영한 제도 개선 시급

대부도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거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생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수도, 배수로, 전기, 가스 등 공공 기반시설을 일정 조건 하에 이웃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 공익사업 인정 범위 확대개인이 추진하는 상·하수도 설치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토지 사용 및 보상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농복합지역에 맞는 별도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해 인프라 설치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행정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매립지 문제까지 겹쳐...지하수 오염 우려

대부도는 현재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인근의 폐기물 매립지나 슬러지 처리장 등은 심각한 지하수 오염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매립 토사를 양질로 사용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수돗물은 생존권이다.행정의 소극적 태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대부도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때다.

끝으로 수도관은 안산시 소유다. 수도관을 설치하기 위해 수백미터까지 떨어진 곳까지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시설비를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것은 수도법2조를 시가 망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일정한 평균 금액만을 지급해도 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한양대 ERICA 영재교육센터 설명회 열기 후끈

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한양대학교 ERICA 영재교육센터(이하 ‘영재교육센터’)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다음 달 설립 예정인 영재교육센터의 입학 요강을 안내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토요일 오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 관심 있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대부도 씨아트 바다펜션&카페시모 ‘안산의 밤’ 공연

대부북동 구봉도 바닷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관객 “내 얘기 하는 것 같다” 공연속으로 빠져든다 ‘강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70분간 대부북동 구봉도(구봉길 102-22) ‘대부도 씨아트 바다펜션&카페시모’(대표 이은숙)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린 ‘안산의 밤’ 공연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마지막 품바 전수자 문정수 선생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고 회화탈을 쓴 5인조 그룹이 공연을 펼친다.

18일 현재 2회 공연을 마쳤고 19일 공연까지 마무리하면 3회째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은 8월말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관객의 호응이 높으면 계속할 수도 있다.

공연 형식은 춤과 대화 형식이다. 때로는 정적이고 때로는 동적으로 관객을 뺨아들인다.

주제는 ‘안산의 밤’이고 대부해솔길 1코스에 있는 북망산 자락 아래

에서 공연을 하는 만큼 북망산도 주제에 들어간다.

대화는 진솔하게 진행되고 모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게 관객들의 공연 후 소감이다.

그래서일까. 공연 내내 동질감을 느끼며 공연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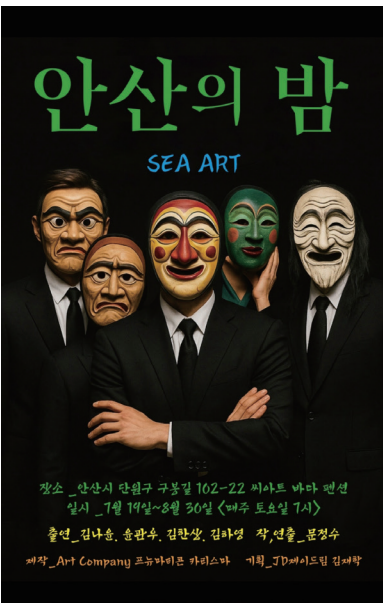
야간 공연인만큼 공연장 주변에 설치된 기둥에 조명이 바뀌면서 화려함도 더한다. 바로 바다앞에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 바다풍광 또한 좋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무더운 여름더위를 한 순간에 날려버린다.

비가 와도 공연은 계속된다. 평소 공연은 야외 카페마당에서 진행되지만 1층 실내에서도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도 씨아트 바다펜션&카페시모’는 1층이 카페인 ‘카메시모’이고 2층은 ‘씨아트(SEA ART) 바다펜션’이며 야외에 넓은 ‘카페마당’이 있는 곳이다.

입장료는 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공연 주요 내용은 대리가사가 운전하면서 차 주인과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형식이다.



공연 후에는 출연진과 1시간 정도 티타임을 갖는다.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앵콜곡도 신청할 수 있다.

입장료는 1인 5만원이다. 공연 후 즐길 수 있도록 생맥주는 무제한 공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부도 씨아트 바다펜션&카페시모’(010-7351-8050)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간 내 신청 서류를 이메일(selene4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및 모집 요강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동현 한양대학교 ERICA 부총장은 “안산시와 함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아이들이 과학, 로봇, 인공지능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학 영재센터를 맡아 운영하게 될

기초과학센터장 박경호 교수는 설명회에서 “영재교육센터는 단순한 과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초체력을 길러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엘리트 육성에 매몰되지 않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유롭게 펼치고 해소할 수 있는 열린 배움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안산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기념행사 500명 참여 ‘대성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주관 행사

안산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회장 김기백)가 12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열리는 첫 공식 기념행사다.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한 이번 행사에는 관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관련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북한이탈주민연합회 안산시지부(회장 주예림)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새터민들과 함께 기쁨을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예림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인조고기밥, 생과자, 쌀빵, 송편, 연감자떡(만두) 등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시식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날개 새터민은 물론 주요 내외빈들까지 음식에 관심이 많아 모든 것이 동이 났다.

행사는 참석자 등록을 시작으로 ▲



이민군 안산시장(맨 앞줄 가운데)이 12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식전 공연 및 북한 음식 시식 ▲기념식 ▲표창 전수 및 축사 ▲기념촬영 ▲장기자랑 및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게 안산시장 명의의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함께 나눴다.

행사를 주관한 김기백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회장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행사를 함께 진행한 주예림 회장은 “우리 새터민들이 지역사회와 잘 어울리고 안산시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오늘을 기회로 우리가 자주 만나고 서로가 도움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아름다운 안산시를 만드는 데 동참하자”고 말했다.

이민군 시장은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이 자리가 상생의 출발점”이라며 “안산시도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정읍향우회 7월 정기모임 장상동 오리세상에서 가져

오는 10월 1박2일 일정 고향방문의날 행사 추진

2025년 7월 정읍향우회(회장 조상운) 정기모임이 12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상록구 장상동 소재 오리세상(상록구 동막1길9)에서 진행됐다.

점심 메뉴는 건강식으로 흑염소탕과 수육이 준비됐으며 후식으로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이 함께했다.

당초 체육대회와 함께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은 올해 유난히 더운 여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향우들을 위해 생략하기로 하고 맛있는 건강식과 함께 정겨운 고향소식을 나누는 시간으로 정리했다.

점심시간 중에는 경품추첨 행사가 이어진 뒤 피날레로 서울 인사동에서

보증하는 시가 400만원 상당 도자기를 놓고 치러진 경품행사에서 당첨된 향우는 기쁨을, 아깝게 당첨을 놓친 향우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기쁨만 부러움 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도자기 경품도 역시 조상운 회장이 직접 후원한 물품이다.

한편 오는 10월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정읍시 고향방문의날 행사를 갖기로 했으며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정읍시는 23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6월말 현재 인구는 10만 1,240명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2025년 7월 정읍향우회 정기모임이 12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상록구 장상동 소재 오리세상(상록구 동막1길9)에서 진행된 가운데 향우들이 정겹게 점심식사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민군 시장, 해솔중학교 방문 과밀학급 해소 등 현안 논의

학생 통학 안전 등 현안도

안산시는 17일 이민군 시장이 해솔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통학 안전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군 시장을 비롯해 강경희 해솔중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해솔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대중교통편 개선 방안 ▲정문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제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해솔중의 과밀학급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시는 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 배치 조정 ▲인근 학교와의 연계 ▲통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정문 앞 신호등 설치 요청에 대한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해솔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차량 통행이 잦은 정문 대신 후문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정문 통학로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해당 위치가 과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이지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군 시장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현장에서의 소통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해솔중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학교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시는 17일 이민군 시장이 해솔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과밀학급 문제와 학생 통학 안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선화 기자

대부동 지사협 ‘중장년 홀로만찬 우리함께 모두모여 찬찬찬’ 진행

정성 가득한 여름 보양식 여름맛이 이웃사랑 실천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중장년 홀로만찬 _ 우리함께 찬찬찬’ 사업을 통해 중장년 및 1인 가구에 이번 1인 가구 50명에게 열무물김치, 삼계탕 간편식, 수박 등 여름철 보양식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홀로 생활하는 이웃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사협 위원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식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열무물김치는 지사협 위원들이 직접 정성껏 열무씨를 뿌리고 가꾸어 수확한 신선한 재료를 담가, 홀로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데 의미가 크다.

최희영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연

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서 혼자 계신 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며 “무더운 여름철 더욱 힘든 시기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중장년 및 1인 가구에 이번 나눔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민관이 함께 정성을 모아 준비한 이번 나눔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중장년 홀로만찬_우리함께 찬찬찬’ 사업을 통해 중장년 고립가구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아버지 역할 성찰 시간… 32명 ‘안산힐링대디’ 프로그램 수료

교육 참여자 ‘삶의 새로운 지침이 생긴 것 같다’ 평가

안산시는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버지학교 ‘안산힐링대디’ 프로그램의 수료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안산힐링대디’는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와 협력해 운영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다. 아버지의 정서적 역할 회복과 가족 내 소통 강화를 주제로 지난 6월 21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강의와 토의 ▲편지쓰기 ▲세족식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가족과의 관계 회복, 감정 표현,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총 40명이 신청한 가운데 32명이 수료했으며, 사후 설문조사 결과 96%의 교육 만족도와 92%의 유사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을 보이며 아버지 대상 정서 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 참여자는 “삶의 새로운 지침이

생긴 것 같다”며 “가정 내 역할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말없이 책임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특강을 비롯해, 자녀 연령별 맞춤형 부모 교육을 지속 운영해 건강한 가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민군 시장은 “표현하는 아버지가 건강한 가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과 정서적 유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지역화폐 ‘다운’ 월 충전 60만 원까지… 최대 6만 원 혜택

안산시는 오는 21일부터 지역화폐인 안산 화폐 ‘다운’의 월 충전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에서 상시 10%로 4%p 늘리는 등 지역화폐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박해철 의원,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인과 간담회

“청년이 돌아오는 산업단지
정부 지원 반드시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경기 안산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회의실에서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안산 경제의 핵심 산업기반으로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통문제 청년 근로자 기피 기업 혁신 역량 저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현안을 공유하고 청년 유입 확대와 교통 인프라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기환·김철진 경기도의원과 박은경·선현우 안산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와 입주 기업 대표 등도 함께해 산업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를 전달했다.

이준기 (사)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장은 “안산스마트허브는 대한민국 제조업 성공의 대표 사례지만 교통 문제,청년 인력 기피, 기업 혁신 역량 저하 등 다양한 애로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확대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소회의실에서 안산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현장의 문제점이 공유됐다. 먼저 대중교통 부족과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출퇴근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문제 해결, 규제 완화, 편의시설 확충, 융복합 집적지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족한 편의시설로 인해 청년층 유입이 저조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 근로자 유입 확대를 위해 출퇴근 불편 해소,

편의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 거리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들은 청년 인력 부족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인력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은 15.6명에서 12.4명으로 감소하며 인력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안산스마트허브의 제2의 부흥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며 전했다.

덧붙여 “청년이 다시 찾아오는 산업단지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단지가 되도록 정부 차원의 R&D지원 등 가능한 산단 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단지 현황 보고 참석자 토론 정책 건의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촬영과 오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정승현(오른쪽) 의원이 17일 OBS경인TV가 주최한 ‘2025 OBS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태창 기자

도민 중심 정책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 노력으로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17일 OBS경인TV가 주최한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 의원은 지난 10대 경기도의회에서 운영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하며 전국의회를 직접 찾아 자치분권의 기반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법」에 앞장섰다. 또한 도정 감시, 재정 건전성 확보, 지역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체계 마련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안정화에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

적 배려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포용적 정책 기반을 다졌다.

정 의원은 예비비 및 조정교부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동시에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담당관 1인이 도산하 28개 기관을 총괄하는 현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능분리와 인력 확충 등 조직 운영의 근본적 개선을 꾸준히 주장해온 점도 주목받았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이었다. 점경지역 빈집 정비와 세부담 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체감도 제고,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 등 다양한 지역 의제를 도정에 반영하며 주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해 왔다. 아울러 평화협력국 존치와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지속성과 통합성 확보에도 힘써왔다.

수상 소감에서 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장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협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이 건의문을 안건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날 박태순 회장이 제안하기도 한 이 건의문에 따르면 ‘자문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특히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10년 넘게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4건이 발의되기도 했고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14일 제126차 정례회의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중부권의장협의회 회원들의 모습. 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인물이 중부권의장협의회 박태순 회장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법 제정안도 4건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률 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런 법적 미비로 주민자치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확산과 정착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주민자

치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명확히 할 것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법률에 포함해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할 것 등 두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중부권의장협의회 박태순 회장은 “주민자치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주민자치회의 확산과 실질적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경기도 중부권의 7개 시의회

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낸 만큼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확산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권의장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의장이 회원으로 있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해 중부권의장협의회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가 이를 채택할 경우, 대한민국시군자치구회의의장협의회에서도 이 사안이 안건으로 다루지게 될 전망이다. 김태창 기자

이은미 의원 “PM 이용 문화, 이제는 ‘법률 제정’과 ‘공동책임’으로 풀어야”

“이용자와 대여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책임 구조 필요”



경기도의회 안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사천)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도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PM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주차, 잦은 사고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불법 주차차 민원 대비 건인 실적은 극히 저조하며, 대부분 시·군에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신고만 접수 중이다. 올해 5월까지 민원은 1만 4천여 건이나, 건인 조치는 208건(건인율 1.4%)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내 대여업체 중심 책임 구조여서, 이용자 자율 책임 의식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 베를린은 주차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베이징은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잠금 해제 불가 및 요금 지속 부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탄도 임시부잔교 두고 ‘철거냐 재활용이냐’ 의견 분분

시, 기능유지 힘들어 ‘철거’ 전문가, 책임위탁 ‘재사용’

지난 2015년경 마련된 탄도 임시 부잔교를 두고 철거냐 재활용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탄도 임시부잔교는 건너편에 있는 전곡항마리나가 준공되기 전에 만들어졌고 전곡항마리나가 준공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시부잔교를 만들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설할 때도 튼튼한 콘크리트 부잔교가 아닌 플라스틱 부잔교로 설치한 것이다. 철거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안전을 담보할 것이냐, 대부도에서 부족한 마리나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 제대로 보수해서 사용할 것이냐를 두고 시와 전문가의 의견에 이견이 있다. 그동안 운영은 안산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도시공사가 일반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맡겼을 때 예상치 못한 풍랑이 일면서 부잔교에 정박중이던 배들이 심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게 됐고 예상치 못한 풍랑이 오면 마땅하게 피할 할 곳이 없어 더 이상 위탁운영을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탄도 임시부잔교는 오래되고 낡아 기능유지가 힘들고 파(파도)가 오면 피항이 안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지금은 전곡항마리나가 생겨서 사용이 필요하지 않고 파가 오면 출렁출렁거리려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잔교 전문가는 “제대로 위탁하게 되면 현 시설을 보완하고 요즘은 일기예보가 정확하기 때문에 전곡항으로 피항하면 된다”며 “또 일부는 전곡항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육지로 피항하면 아무런 문제



지난 2015년경 마련된 탄도 임시부잔교의 모습이다. 최근 이를 두고 철거냐 재활용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윤성용 기자

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산에는 아직 마리나 부잔교가 없는데 제대로 된 위탁업

체를 선정해 책임관리를 맡긴다면 철거에 따른 예산도 절약하고 요트와 보트메니아 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시의 철거 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 2025 주민총회 개최 알림

대부동 2025 주민총회가 22일 오전 10시부터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영전로 126) 2층 체육관에서 진행 된다.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우선 순위 선정과 자치계획 및 실행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14일부터 17일까지 대부분화센터에서 마무리됐다.

2025 안산 대부 지방 찬양축제 알림

다시 시작되는 찬양의 불꽃 ‘용기 장이’라는 이름으로 2025. 7. 23. 수요일 오후 7시30분 대부교회 본당에서 펼쳐진다. 주최는 안산 대부 지방 남/여선교회이고 후원은 대부 지방 14개 교회다.

지켜지는 펫티켓, 모두 행복한 산책길

대부도내 구봉공원, 방아머리공원, 내부바다항기테마파크, 방아머리해변 등을 애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에티켓을 지키자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대부해양본부 개부개발과는 목줄·가슴줄 착용, 맹견 입마개 착용, 배변봉투 지참 및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을 통해 쾌적한 대부도를 만드는데 앞장 서자고 당부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 보호 강조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서식지 무단 출입 금지)에 동참해 주세요. 안산시는 환경부와 함께 우리나라 멸종위기 동물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부바다항기테마파크에서는 검은마리물떼새(천연기념물 326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흰발농게(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가 살고 있습니다.” 라면서 현수막을 내걸었다.

해변 내 취사·야영 금지 등 행위제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를 통해 해변 내 취사 및 야영 금지 등 행위제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텐트, 쉼터 등은 설치 불가하지만 타코, 파라솔은 설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변경 또는 해제시까지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한 안부를 전했다. 김은숙 대부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및 봉사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시화호 수상태양광추진, 전국최대 대호방조호 벤치마킹



경기도가 추진중인 시화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해 15일 대부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남서산에 위치한 대호방조제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벤치마킹이 이뤄졌고 현장에서 많은 궁금증에 대한 질문답이 이어졌다. 김선중 기자

대부도주민 참여 유도 앞으로 본격 추진 다짐

경기도가 추진중인 시화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해 대부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주민설득과 정보공유가 시작됐다. 15일 경기도 주관으로 한국 자치경제연구원 이철호 박사의 인솔하에 대부도통장협의회 이영우 회장, 대부도부녀회 김은숙 회장을 비롯해 주민대표 35명이 충남서산에 위치한 대호방조제 수상태양광 발전소(98메가와트)를 방문했다. 한국동서발전(주) 신원식 팀장의 대호 발전소건립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해당지역 대산읍발전협의회 김중학 사무국장으로부터 당해주민에 대한 배당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대부도주민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현장에서 질문답 형식으로 계속됐다. 이날 벤치마킹은 현재 시화호에 추진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전국 최대규모인 대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례를 통해 대부도 주민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견학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면 대호방조제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민간사업자인 한화솔루션의 시공으로 투자금액 1,852억원으로 조성됐으며 전체 발전 용량 98mw중 지역 주민에게 별도 지분 참여 없이 수익금을 매년 약 100억원에 대해 5%에 해당하는 4mw의 지분을 무상으로 20년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발전수의 일부를 현지 주민에게 환원하는 형태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인 핵심 요인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장을 함께 방문한 대부도주민 대표들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방식이라면 시화호 수상태양광 건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다. 이번 견학은 단순한 발전소 견학을 넘어 실질적인 주민참여 모델을 확인하고 대부도 지역 여건에 맞는 수상 태양광 모델을 구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선중 기자 realestateksj@daum.net

市, 대부도 초등생 대상 어업지도선 승선 체험 기회 마련

대부도 탄도항 일대에서

안산시는 16일 대부도 탄도항 일대에서 대부도 대동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어업지도선 승선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이 진행된 어업지도선 ‘안산 바다호’는 시가 운영하는 관광선이다. 주로 해상에서의 어업질서 유지 및 불법 어업행위 지도·단속과 풍·육도 도서주민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해양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업지도선에 직접 승선해 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프로그램은 ▲어업지도선 견학 ▲해양행정 업무 소개 ▲해기사 직업 안내 및 승선체험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생소했던 어업지도선의 임무와 역할, 해상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과 함께 조타실 및 항해·통신장비 등 어업지도선 내부 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운행하는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선박 운행을 체험하고, 선박에서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요령과 구명조끼·소화기 등의

물품 사용법도 함께 교육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시는 향후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아래 대부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 관련 행사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병구 대부해양본부 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바다와 친숙해지고 해양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해양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 대부도 대동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16일 대부도 탄도항 일대에서 어업지도선 승선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대부동 새마을부녀회, 독거노인을 위한 삼계탕 및 반찬 나눔

삼계탕과 오이무침 전달 애호박볶음 등 반찬도 함께

단원구 대부동 새마을부녀회는 15일 여름철 독거노인 돕기 ‘사랑의 삼계탕 및 반찬 나눔 행사’를 진

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부동 새마을부녀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독거노인 가정에 직접 준비한 삼계탕과 오이무침, 애호박볶음 등 반찬을 전달했다. 특히 오이와 애호박 등은 부녀회원

들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아침부터 조리한 음식은 통별 부녀회장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으며,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한 안부를 전했다. 김은숙 대부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및 봉사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신작로 단체, 안산 본오中 결식청소년에 쌀 후원

“매년 장학금·쌀 후원 이어가”
꾸준한 후원약속도 함께 전해

안산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신작로’가 지난 7월8일 본오중학교 결식청소년을 위해 쌀 30포(총300kg)를 후원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후원식은 본오중학교 내 강당에서 열렸으며, 학교 관계자들과 학생 대표, 신작로 단체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후원물품 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작로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강성구 의장은 인사말에서 “청소년들이 배고픔 없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수한 학생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 전달과 쌀 후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본오중학교 조명철 교장은 “지역사



안산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신작로’가 지난 7월8일 본오중학교 결식청소년을 위해 쌀 30포(총300kg)를 후원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신 신작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학생들이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나누며, 희망과 꿈을 지닌 자존

감 높은 본오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신작로 단체는 다문화 지역민들과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 생

필품 지원, 지역별 어른들에게 효잔치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꾸준히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2025 안산시장기 생활체조 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시민 건강과 화합의 축제
안산 감골체육관에서 열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5 안산시장기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지난 7월 12일 토요일, 안산 감골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열띤 참여와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안산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안산시체육회(회장 이광종)가 주최하고 안산시체조협회(회장 김지숙)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일반부, 어르신부, 학생부, 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에서 약 400여명의 참가자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5 안산시장기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지난 7월 12일 토요일, 안산 감골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열띤 참여와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안산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김태창 기자

개회식에서 안산시체조협회 김지숙 회장은 “생활체조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으로, 특히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체조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안산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안산시체육회 이광종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지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뜻깊고, 앞으로도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기는 생활 체육의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각 부문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담은 체조 동작들을 선보이며 관중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각 부문별 우승팀은 다음과 같다. 어르신부에서는 건강체조 부문에 한울체, 댄스체조 부문에 우리는하나가 선정되었다.

일반부에서는 건강체조 부문에 레

인보우, 민속체조 부문에 홀라센스, 댄스체조 부문에 더블에스터블비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등부에서는 건강체조 부문에 프리지아, 댄스체조 부문은 K진 퀸즈라인이 우승을 차지했다.

장애성인부에서는 건강체조 부문에 하트, 댄스체조 부문에 예술, 장애학생부 댄스체조 부문에는 B.T.H가 각각 수상하였다.

대회 현장은 가족, 친구,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응원과 격려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

다. 다양한 연령과 신체 조건을 가진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호흡하고 무대를 완성해가는 모습은 진정한 생활 체육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느끼게 했다.

이번 대회는 각 부문별 시상과 함께 전 참가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으며, 안산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 체육 문화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빼에로 마라토너 이영길 해남군 명예홍보대사에 위촉



해남군이 지역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마라토너 이영길(오른쪽) 씨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빼에로 마라토너’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영길 씨는 해남군 송지면 출신의 재안산 향우로, 마라톤 완주 경력이 무려 134회에 이른다.

김태창 기자

가수·인플루언서 등과 함께
3명 위촉...2년간 활동 예정

해남군이 지역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최근 마라토너 이영길, 가수 추혁진, 인플루언서 감경진 씨 등 3명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제52회 해남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홍보대사들은 향후 2년간 해남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알리기에 앞장서게 된다.

‘빼에로 마라토너’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영길(61) 씨는 해남군 송지면 출신의 재안산 향우로, 전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해남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며 지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

다.

최근까지 마라톤을 완주한 횟수만 134회에 이른다.

안산에서도 행사장 곳곳에서 빼에로 복장으로 참여자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고 있어 시민들에게 ‘빼에로 아저씨’로 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빼에로 마라토너 이영길 씨는 “모든 마라톤 경기에 ‘해남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글씨판을 앞뒤로 붙이고 뛰고 있으며 고향 해남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부도에서 진행되는 마라톤 대회의 경우에는 맨 끝에서 뛰며 낙오자가 없도록 격려하고 함께 손을 잡고 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다채로운 경기장 만들기’ 안산, 안산시치어리딩협회와 업무 협약



안산그리너스FC가 안산시치어리딩협회와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 지속 가능한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의 발전 위해
안산시치어리딩협회와 협약

안산그리너스FC(이하 안산)가 안산시치어리딩협회와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안산은 지난 7일 안산시치어리딩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과 치어리딩 저변 확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의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산시치어리딩협회는 안산 지역 내 치어리딩 문화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기관으

로, ‘리버스 올스타 치어리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치어리딩협회 공식 인증을 받은 ‘리버스 올스타 치어리딩 아카데미’는 안산 최초의 치어리딩 전문 교육 기관으로,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과 전문적인 코치들의 체계적인 수업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손꼽히며 취미반부터 전문반까지 높은 퀄리티의 수업이 진행된다.

안산시치어리딩협회 손연희 회장은 “안산을 대표하는 안산그리너스FC와 리버스 치어리딩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안산 시민분들께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멋진 치어리딩 공연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원곡高 “수학으로 푸는 암호, 재미로 푸는 사고력!”

학생 중심, 활동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원곡고등학교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고, 문제해결력과 협업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체험형 수학 행사 ‘2025 수학 암호 챌린지’를 본

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참여한 점에서 높은 교육적 의미를 지녔다.

행사는 본교 1층 이동수업교실에서 진행됐으며, 수학 동아리 (수학빛

〉 소속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부터 문제 제작, 예산 편성,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졌다. 동아리 학생들은 학년별 팀을 구성하여 수학 수업에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를 개발했고, 이를 게임 형식의 부스 활동으로 구성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문제를 풀고 암호를 풀어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수학이다’ ▲스도쿠와 미로 찾기 등 수학적 사고를 요하는 ‘수학의 즐거움 열다’ 등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백운동 새마을회, 이웃사랑과 환경사랑 동시 실천



단원구 백운동 새마을회는 지난 15일 수거한 폐건전지 78kg을 교환해 받은 화장지 156롤을 관내 독거어르신에게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운동 새마을회원들은 직접 폐건전지를 모으고,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해 폐건전지를 수거했다. 이렇게 모은 폐건전지를 백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장지로 바꿔 독거어르신에게 전달해 환경사랑과 이웃사랑을 동시에 실천했다.

한명호·이진숙 회장은 “매년 많은 건전지가 분리수거되지 않고 버려지

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니 재활용이 되도록 폐건전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건전지 수거에 적극 협조해 주신 새마을회원과 주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영란 백운동장은 “항상 이웃사랑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백운동 새마을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백운동 행정복지센터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별망초등학교 ‘초지동 나눔장터’수익금 기부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별망초등학교(교장 정성조)와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가 공동 주관한 ‘2025 초지동 나눔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 34만 4천여 원을 기탁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초지동 나눔장터’는 지난달 4일 별망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주도로 진행됐으며,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 의미를 더했다. 나눔장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나누며 자원순환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또

한 ▲순수건 만들기 ▲비즈팔찌 만들기 ▲양말목 공예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성조 별망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나눔장터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들이 자원순환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뜻깊은 교육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와동 통장협의회, 미등록 경로당 방문 안부 살피



단원구 와동 통장협의회는 초복을 맞아 지난 16일 관내 경로당 15개소를 방문해 수박 30통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초복을 맞아 와동 통장들이 미등록 경로당 4개소를 포함한 관내 경로당 15개소를 방문해 수박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주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로당 회장들은 “때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안부를 묻고 불편한 사항을 없는지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며 고마움을 전했다.

맹성희 와동 통장협의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이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박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을 살피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애 와동장은 “와동을 위해 애써주시는 통장협의회에 감사드리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동에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원곡동 주민자치회, 공감·참여로 빛어낸 화합의 장



단원구 원곡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6일 원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자치사업은 총 3건으로 ▲ 제6회 원곡동 다문화 음식축제 ▲ 제3회 경로당 찾아가는 문화교실 ▲ 제2회 원곡동 돛자리 영화제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주민참여예산 동주도형 사업은 찬반 투표로 진행되어 ▲원곡동 스마트 현수막 제작의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 가결됐다.

박주현 원곡동 주민자치회장은 “언어와 국적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이 동네에서 함께 사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석주 원곡동장은 “원곡동은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아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인 이 자리가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 행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이동 지사협, 한대역 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상록구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한대앞역상점가상인회(회장 손인엽)와 간담회를 개최해 ‘이동 희망이웃사업’ 후원 동참을 독려하고 ‘착한가게 지정사업’을 홍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대앞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공동체 조성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울리 이동 지사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진행 중인 ‘착한가게 지정사업’을 소개하며 많은 한

대역 인근 상인들이 정기후원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연수 지사협 위원장은 “지역 상인들의 따뜻한 나눔이 우리 이웃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큰 원동력이 된다”며 “더 많은 분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옥란 이동장도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손인엽 회장님과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함께 사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누리봄봉사단, 일동 성호경로당 국수 나눔 행사



상록구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누리봄봉사단이 성포동 바르게 살기위원회(위원장 김수현)와 협력해 일동 성호경로당에서 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쌍이 누리봄 봉사단장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와 함께 정서적인 위로까지 전할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경로당을 돌며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식 성호경로당 회장은 “이렇게 더운 날에도 직접 찾아와 식사 및 손

톱 정리까지 도와주시니 몸도 마음도 다 시원해진 것 같다”며 “세심한 배려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혜숙 일동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정서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용방건설산업(주)

- | | |
|-----------------|----------------|
| ■ 토목사업 | ■ 지반조성 포장 공사업 |
| ■ 연약지반 공법 시공업 | ■ 중장비 매매 및 임대업 |
| ■ 파일 항타 공사업 |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 ■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대표 서승대 M. 010.2605.9877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35 2층



박태순(더불어민주당/일동·이동·성포동) 안산시의회 의장이 최근 지방자치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OBS 자치분권대상’을 수상했다.

박태순 의장은 17일 경기도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대상 기초의정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OBS 자치분권대상 수상

17일 경기도아트센터서 열린 시상식서 지방자치 발전·경쟁력 향상 기여 공로로 수상 영예

재선 의원인 박태순 의장은 지난해 7월 제9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쳤던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는 평가다.

실제로 박태순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분권 가치 확산의 취지로 몽골 대만 독일 등 해외 국가의 지방정부들과 우호 교류

간담회를 주도하면서 의회 활동의 외연을 넓혔다. 또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구룡경로당 건립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해

결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는 경기도 중부권7개시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7개 도시 간 상호 협력과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박태순 의장은 취임 직후부터 열린 의장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나누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열린 의회상 구현에 힘썼다.

박태순 의장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이 아닌 안산시의회 전체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리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태창 기자

축하, 홍보, 급매 광고 전문

생일, 결혼, 승진, 축하 광고.
상호, 제품, 행사, 영업 홍보.

급하다! 지금팔자! 부동산 급매물

대부도저널 광고국장
김선중 M: 010.3199.4992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히든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카캬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01-1



행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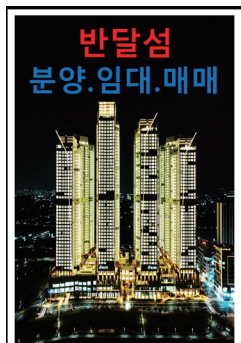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종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육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서해부동산

박헌배 M. 010.8810.3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지런이길 61-8(대부남동)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김관중 M: 010.9080.1195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토야프렌즈

조기열 M. 010.9436.9055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03번길12, 1동 401호

웅진군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준공식 개최

주민 복지 및 정주 여건 획기적으로 개선 기대

웅진군은 16일, 대청도 주민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는 2022년 8월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3월 착공되었으며, 연면적 494.8㎡,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27억 5천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찜질방을 포함한

공공 목욕탕 시설이 조성됐다.

문경북 웅진군수는 이날 준공식에서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개관으로 대청도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계기로 대청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웅진군은 16일, 대청도 주민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정희재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 운영, 지급준비 착수

오는 21일부터 시행 차질없도록 노력

웅진군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하고, 14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경제산업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경제정책과 내에 구성했으며, 총 3개팀 15명으로 운영된다. ▲사업총괄관리 ▲세부계획 수립 ▲언론 및 주민 홍보 ▲지급수단 확보 등 전 과정에 걸쳐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이 지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7개 면사무소에는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을 조직해,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원되며, 개인별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며, 웅진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어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 받는다. 1차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경북 웅진군수는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덕적도 교통안전을 위한 도색 봉사활동 실시

덕적도로 왕복 약 1.1km 구간의 도로변 옹벽 도색

(재)웅진복지재단(이사장 문경북)은 지난 12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학장 강상준) 사회복지학과와 함께 덕적도로 왕복 약 1.1km 구간의 도로변 옹벽 도색을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덕적도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인천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 30여 명과 (재)웅진복지재단 직원들이 참여하였다. 노후화된 옹벽을 깔끔하게 도색하여 시인성(視認性)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덕적도의 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봉사에 참가 학생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봉사활동에 임하였고,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재)웅진복지재단은 지난 12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와 함께 덕적도로 왕복 약 1.1km 구간의 도로변 옹벽 도색을 통한 교통안전시설물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태창 기자

것으로 보인다.

김원학 덕적면 이장협의회장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도색작업을 진행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에게 주민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이명옥

학생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덕적도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재)웅진복지재단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은 지난 3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활동 추진, 사회공헌 활동 공동수행 등 웅진군의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웅진군, 2026년 농정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2026년도 친환경 및 농정분야지원사업 7월 31일까지 수요조사 접수

웅진군은 16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농정분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농정분야 지원사업의 사전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 자료로 활용하고, 지원사업의 수요조사와 사업신청을 병행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한다.

2026년도 농업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대상 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축사 환경개선 설비, 말벌 퇴치 장비, 모기 퇴치 장비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이며, 그 외 24개 사업으로 벼운반 파렛트, 양봉산업 육성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비닐하우스 지원, 상토 지원 등으로 관내 거주 농업인 및 농업법인·생산자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세부 지원사업 대상 목록과 신청방법은 농정과 또는 각 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양지개발 토지컨설팅사무소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대표 김 상 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방조제길 113)

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 결과 함께 살펴

도의회 2층 청소원 대기실
찾아 노동존중 실천의 협치
성과를 공동으로 함께 점검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의회 2층 청소원 대기실을 찾아 노동존중 실천의 협치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7일 김진경 의장이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본회의 전 정담회를 열어 청소원 대기실 환경개선을 제안하고, 세 기관장이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여건 개선에 뜻을 모은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김 도지사와 임 교육감은 청소원 대기실 추가 확보를 위해 자신들

의 대기 공간 일부를 기꺼이 제공하며 협치의 상징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청소원 대기실의 환기장치 확보, 공간 증설, 안마의자 설치, 개인사물함 비치 등 편의시설을 증설해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했으며, 동시에 조리원 등 현업직원 대기실에도 안마의자를 확충했다.

김 의장은 “청소원 대기실이 1.5배 가량 넓어지고 여러 편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직접 공간을 양보해 만들어낸 노동존중의 상징”이라며 “도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치하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익을 우선하는 노동존중의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과 함께 의회 2층 청소원 대기실을 찾아 노동존중 실천의 협치 성과를 점검했다.

김태창 기자

전문가 칼럼

기후위기 시대, 시화호 수상태양광의 길을 묻다



김시경

대부도협동조합 전무이사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다.”

연일 이어지는 이상기후와 극한 재해는 우리에게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매 순간 상기시킨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는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좁고 토지 이용 갈등이 심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수상 태양광’이다.

수상태양광은 말 그대로 물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육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특히 수도권 인근의 시화호는 유류 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시화호는 간척지 수면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과학적 안정성까지 입증된 드문 사례다. 여기에 전력 수요 중심지와의 접근성까지 갖춘, 그야말로 ‘에너지 전환의 테스트베드’다.

시화호 수상태양광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해서가 아니다. 수온 상승 억제, 수면 증발 감소 등 환경적 부가효과가 기대되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나아가 유류 수면이라는 공공 자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지역 모델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의 ‘밝은 면’만 볼 수 없다. 아직 생태계 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데이터는 부족하며, 경관 훼손에 대한 주민의 우려, 어업과의 충돌, 불명확한 제도 틀 등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잘못된 설계는 주민 갈등을 키우고, 정책 실패를 떨어뜨릴 뿐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충남 서산의 대호호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례다.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지역 상생 방안을 설계하며, 환경과 기술의 조화를 도모한 대호호 사례는 시화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과학적 검증과 주민 참여가 핵심이다. ‘지역을 위한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RE100 참여 기업과 연계한 수익공유형 모델,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지역 맞춤형 데이터 축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직자와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없이는 어떤 방법도 성공할 수 없다.

시화호는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갈 것인지 묻는 시험대다. 협력과 신뢰, 그리고 냉철한 검증 위에서 이뤄지는 수상태양광 정책은 단지 에너지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밝혀줄 에너지 등대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해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의 합의에 있다.

경기 청소년, 교실 속 아이디어로 미래를 설계하다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고양 ‘경기도교육청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의 창의성과 창업 역량을 기르는 ‘2025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교육청, ‘2025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마쳐

최종 심사에서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연두) ‘스마트 방식’ ▲(WAYMAKER SHCOOL, P-DAY) ‘원형식 멀티탭’이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을 확보해 전국 무대에 도전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회와 같이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를 사회와 연결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실질적 진로 설계 능력 함양을 위해 창업 체험 교육 거점기관 운영, 교원 대상 창업 연수, 창업 교육 자료 개발, 창업 캠프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창업 교육 기반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고양 ‘경기도교육청미디어센터’에서 청소년의 창의성과 창업 역량을 기르는 ‘2025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은 교실에서 시작하는 창

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이를 실현하는 창업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획했다. 대회는 도내 151개 청소년 창업동아리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고, 1차 서면 심사 결과 최종 20개 동아리가 2차 발표 무대에

올랐다.

발표평가는 직접 구상하고 개발한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발표했고, 심사는 창의성·실현 가능성·사회적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해병대 신입대원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휘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市, AI 체험·교육 가능한 ICT 랜드마크 조성... 스마트도시 구현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이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책브리핑에서 안산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공모 선정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비 총 160억 원 투입

안산시는 기존 도시정보센터(상록 구 사동 소재)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인공지능(AI)을 몸소 체험하고 교육받으며,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ICT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안산시는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개최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ICT 랜드마크로 도시정보센터에 조성될 스마트 네스트센터(Smart Nest Center)는 ▲스마트도시 체험 및 전시관 ▲시민 참여형 데이터 활용 리

빙랩 ▲교육용 AI 디지털 디바이스를 도입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 등이 마련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16개 지자체와의 5.3: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공간 조성에 동력을 확보했다. 시는 브리핑을 통해 이 공간 조성을 기점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도시 혁신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는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도

시 및 산업 데이터를 통합해 도시와 산업, 시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든 시민이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가령, ▲MaaS(Mobility as a Service)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다국어 교통·관광·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등에 기반해 청년층 유입과 정주를 유도하고 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과 캠퍼스 혁신파크 간의 기술이전, 인재 공급망 등을 연결함으로써 연구와 산업 교류 또한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인구 감소, 다문화 사회

로의 전환 등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노후화, 시민의 스마트 행정 수요 등에 발맞춰 스마트 도시 모델 구축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외국어 교육 현장 등에 AI 맞춤형 교육 지원 ▲의료 현장에 의료기관과 협력한 건강관리 및 원격의료 지원 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생활 현장에 도로 위험 및 사고에 선제 대응하는 AI 기반 도로 위험 탐지 기능을 도입, 행정의 효율화를 가한다.

안산시는 이 같은 사업에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총 160억 원(국비 80억 원, 지방비 8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이러한 행정 서비스를 통해 내·외국인 시민이 함께 성장하며 인구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안산이 AI 기반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았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 기업,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중심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타 지자체와의 협업을 이끌어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선 지하화, 누리집 오픈 시민 소통·통합개발 정보 한눈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공식 누리집 화면. 정희재 기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식 누리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누리집(www.ansan.go.kr/ansanline)을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17일 밝혔다.

공식 누리집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메뉴는 ▲안산선 지하화 사업 추진배경 및 사업비전 소개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단계 설명 ▲사업개요 안내 ▲사업비확보 계획 ▲자주 묻는 질문(FAQ) ▲시민 의견 수렴 등으로 구성됐다.

안산시는 본사업이 향후 10년 이상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공식 누리집 운영을 통해 사업 관련 각종 자료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개함으로써 시민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록 하고, 시는 이를 수렴해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시 핵심 전략사업 가운데 하나다. 지상철로 인해 단절된 초지역부터 중앙역(5.12k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축구장 약 100개 크기 규모의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도시공간을 회복하고자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고, 정체기를 겪고 있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 성장 동력에 마중물을 삼을 계획이다. 또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도권 서남부 대표 도시로의 공고한 도약에 나선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규모와 파급력이 큰 만큼 시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에 오픈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최신 사업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안산의 새로운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6개국 외신기자단, 안산시 방문... 선진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취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다문화마을특구 일대 방문

안산시는 지난 16일 6개국 외신기자단이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다문화마을특구 일대를 방문해 시의 선진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취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미디어협력과 주관으로 이뤄졌다. 6개국 8명의 외신기자를 포함한 11명의 방문단은 이날 오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방문, 시의 외국인 주민 정책 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최초의 다문화 도시 정책을 주도해 온 시의 노력 배경과 임금 체

불·산업재해 등 외국인 주민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 운영에 대한 집중 조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캐나다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이민자 가족에 대한 신중한 지원책 마련 등 국가 이민 정책 고도화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논의됐다.

기자단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와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제공 중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선진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모델을 알려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포부다. 이선화 기자

주문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드립니다
모든 수조는 독일 WACKER(바커)사의 아쿠아리움 전용 실리콘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규현 공방 010-4071-2797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15회]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에서 만난 사람들[하]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지난호 계속 >>>

대부도는 인심이 좋아 선생님 대접은 잘하였다. 스승의 날에는 많은 음식을 학교에 가지고 와 흐뭇한 하루였다. 대남초등학교 주변 환경은 ‘섬마을 선생님’ 노래 가사와 닮은 점이 많았다. 인천에 가려면 만조(滿潮) 때 나무로 만든 동력선이 하루 한 번밖에 없었고, 안개, 바람, 파도 등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육지에 나가기 어려워 방학이 되어야 갈 수 있었다. 1960년대 아버님이 남해안을 다녀오는 데 보름이 걸렸다.

여섯째, 2018년 7월 30일 6회 졸업생 이재복 이사, 2018년 8월 9일 양원주 선생님, 2018년 8월 11일 중부흥 주민, 2018년 8월 26일 행남곡 주민에게 들은 내용이다. 이재복 이사의 집 근처에 선생님이 거주하였는데 휴일에는 육지에 가지 못해 학교 근처 바닷가에서 노는 것을 자주 보았다.

탁○용 선생님은 흠어머니와 학교 사택에서 살았고 명골 마을의 이(李)씨 집안 이○화 섬색시와 결혼하여 인천으로 전근(轉勤) 가서 교장으로 승진하였다. 양○주 선생님 집안의 양○자 섬 색시는 각근재 마을에 살던 박○원 총각 선생님과 결혼하였는데 여고를 갓 졸업한 양○자 섬색시가 꽃병으로 방을 예쁘게 꾸며 주면서 사랑이 싹트었다고 한다.

인천으로 전근가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고향은 함백으로 원주에 살고 있다. 양 선생님이 대남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것도 서강훈 선생님 덕분이었고, 인천에 살다가 대남초등학교 건너편 느릿뿌리 바닷가에 집을 짓고 수영목 마을 이춘자 섬색시와 살고 있다.

일곱 번째 2018년 8월 11일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주인공 대남초등학교 서강훈 총각 선생님께서부터 들은 증언이다. 1960년 6월 3학급 대남초등학교 개교 때부터 근무한 서강훈 총각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아버지가 한 의원을 운영하였는데 독립군 자금책으로 종로경찰서에서 사망하였고, 서울에 살 수 없어 대부도에서 가장 외진 중부흥 바닷가 마조금 마을로 피신하여 살게 되었다고 한다.

대부국민학교에 다니다가 서울 집으로 돌아가 종로 청운중학교를 졸업 후 인천사범학교에 진학하였다. 모교인 대부초등학교에 첫 발령받아 마조금 마을에서 왕복 7km를 통근(通勤)하였다. 이 학교에 근무하던 중 1960년 6월 3학급의 대남분교장(大南分



신정용 교장 선생님과 김정수 노인회장의 중부흥 수영목 섬색시 마을 이야기 증언 모습



이규영 소금돔배 선장과 신정용 교장이 긴장불이 주변 섬마을 선생님을 소개하는 이야기 증언 모습

校場) 개설(開設)로 분교장(分校長)으로 가게 된다. 이 분교는 1961년 4월 6학급 대남국민학교(大南國民學校)가 되었다.

서강훈 선생님은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휴직계를 제출하였지만 초대 정관호 교장이 교사가 부족하다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섬학교를 벗어나는 길은 입대(入隊)밖에 없었다. 선생님은 외동아들에 군경유자녀라 입대(入隊) 면제자였지만 논산훈련소에 지원하여 훈련을 받은 후 서울 특수병과에 배치받아 대학교도 졸업 한다.

제대(除隊) 후 대남초등학교로 복직하려 했지만 모(某) 기관의 요청으로 인천에서 특수 임무 수행 후 언론에 종사하게 된다. 필연적(必然的)으로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섬마을 총각 선생님과 열아홉 섬색시’는 인천에 거주하다가 공기가 좋은 학교 건너편 느릿뿌리 마을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덟 번째 2018년 7월 30일 안산갈대습지공원에서 대부도 조류 철새 전문가 최종인 씨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대남초등학교 앞 갯벌은 연안습지로 국토해양부 지정 갯벌보호지역이다. 이 학교 앞 갯벌은 넓고 먹이가 풍부하여 대부도의 다른 곳보다 다양한 철새들이 많이 찾는 갯벌이라 람사르습지로 등재 되었다.

이상의 증언을 종합하면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소재와 일치하는 안산 대부도 대남초등학교가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데스크 칼럼

탄도 임시부잔교에 대한 고민



김태창
편집국장

책임관리 할 업체를 선정해 부잔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철거비용도 아낄 수 있고 각종 보트 요트도 정박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어업의 쇠퇴와 함께 각종 부잔교들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해양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탄도항은 인근의 ‘누에섬’과 ‘탄도갯벌체험장’, ‘탄도항 일몰 포인트’와 함께 관광 코스로 인기가 높다. 누에섬까지 연결되는 시화방조제 일대의 해상산책로와 연계 관광도 가능하다.

향후 활용 방안을 제안하면 해양관광 거점화로 부잔교를 출발지로 하는 해양 생태 투어, 섬 투어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

탄도 갯벌 체험, 낚시 체험, 유람선 관광 등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잔교와 탄도항의 개발 역사를 소개하는 소규모 전시관을 누에섬 어촌민속박물관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일정부분 조명을 추가하면 야경 및 사진 명소화 장소도 가능하다.

탄도항은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므로, 야경 조명 설치, 야간 포토존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지역축제와 연계도 가능하다. ‘탄도 해양문화축제’ 등과 연계해 부잔교를 행사장 또는 퍼레이드 동선으로 활용도 가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탄도 부잔교는 단순한 해상 교통 시설과 마리아나 개념을 넘어, 대부도와 인근 섬 주민의 생활, 지역 어업,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복합적 거점이다. 향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 인프라로서 재활성화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5년 경력 간판 제작 설치 전문업체

Led채널. 특수제작간판. 썬팅. 현수막. 명함. 판촉물



mi-re
enterprise

미래기획

대표 이 병 철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3(대부북동) ☎ 010.9366.9699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감성과 수익이 흐르는 부지
대부도 말부흥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